

방치된 정부양곡창고가 영암 수제 맥주 양조장으로

무안군,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2175그루

영암군, 전남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선정 사업비 10억 확보...회문리 대동공장 리모델링해 활용

영암을 대표하는 수제 맥주 생산에 탄력이 붙게 됐다.

영암군은 14일 전라남도 주관의 '2024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해 1~3차 복합산업시설을 만들고, 지역 소득과 고용을 높이는 활동을 뒷받침하는 공모.

영암군은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지역 브랜드 수제 맥주 생산설비 구축 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온 영암읍 회문리의 정부양곡창고인 대동공장을 리모델링해 수제 맥주 제조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민선 8기 영암군은 지역을 홍보하고, 영암 여행과 관광의 맛을 더해줄 지역 대표 맥주 제조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막걸리로 빛을 영암 전통주 '문득'과 수제 맥주 3종 시제품을 개발·출시해 몇 차례 시음행사 등도 거쳤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수제 맥주 생산설비 총 20억 중 절반을 확보한 영암군은, 내년 시판을 목표로 양조장 설립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게 됐다.

영암 대표 수제 맥주는 월출산 맥반석을 흐르는 맑은 물과 우수한 품질의 영암 맥주보리, 쌀, 고구마, 멜론 등을 원료로 제조할 예정이어서, 지역 농가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영암군은 지역 문화관광단체와 함께, 앞으로 설립될 수제 맥주 양조장을 맥주 생산과 시음·체험은 물론이고, 문화공연장 등으로 활용해 농산물과 2차 생산품, 관광이 어우러지는 6차산업 공간으로 꾸민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방치된 정부양곡창고를 수제 맥주 양조장 겸 지역 활력 거점시설로 바꿔서 소득 다각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모델로 세우겠다. 영암읍 특화음식거리와 영암읍성, 달맞이공원 등과 양조장을 연결한 관광상품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더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은 15일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관계기관 및 임업후계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안을 신학리 산108번지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가 열린 무안을 신학리 산108번지 일원은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한 지역으로 재선충병의 확산 예방을 위해 방제사업의 일환으로 벌채 등 방제사업을 실시한 곳이었다.

행사에서는 1.45ha 면적에 4년생 편백나무를 2,175그루 식재하였으며 기후변화 위기에 탄소중립 실현과 목재 가치의 우수성 등을 알리는 목재이용 활성화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군은 올해 큰나무조림 14ha, 경제수조림 16ha, 지역특화조림 15ha 등 총 45ha의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나무 심기를 통해 산림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가오는 봄을 맞아 푸르른 나무처럼 일상에서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시행한다

신안군은 오래된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지원 규모는 총 549대(5등급 244대, 4등급 300대, 건설기계 5대)로 차종·차량·연식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르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로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50만 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되고, 상한액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한편, 지난해와 다르게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 일까지 환경 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 차량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단속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며, "미세먼지 없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제20기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개강식 성료

2004년 결성...오는 11월까지 이론 및 실습 14회 걸쳐 진행

함평군은 16일 국화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개강식이 함평군농업기술센터 플라워두드교육장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화동호회는 2004년에 결성되어 올해 20기를 맞이한다. 지난해 100여 명의 회원이 수준 높은 작품을 출품하여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 결과 올해는 많은 신규회원이 모집되어 기대가 높다.

교육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이론 및 실습을 14회 걸쳐 진행한다. 함평군 등록품종

인 나비연옥황, 나비선유 등 회원들의 작품 활동을 위해 특별분양하고 있으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전문기반 총 4개의 반으로 구성,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분재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의 군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배움의 열정으로 도전하는 의지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오는 2024년 국화대전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김명준기자



제1차 영광군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2024년 해양수산사업자 선정...2025년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등 심의·의결

영광군은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군수 김정섭(위원장)을 비롯한 수산조정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영광군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해양분야 ▲수산분야 ▲어업·어촌분야 등 19종 사업 3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해양수산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친환경소재 수산물포장재 지

원 등 신규사업 4종을 포함한 22종 사업 99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국고보조금 해양수산사업 예산 신청과 2024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를 토대로 2024년 해양수산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2025년 국고보조금 해양수산사업 예산을 전남도를 통해 해수부로 신청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2024년 유달산 봄 축제 3월 마지막주 개최

30~31일 유달산 일원에서 개최

2024년 유달산 봄축제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유달산 일원에서 '이순신의 선택, 노적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목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인연이 깊다. 이순신 장군은 해남과 진도사이 울돌목에서 펼쳐진 명량대첩에서 대승을 거둔 후 106일간 목포 고하도에서 수군을 이끌고 머물렀다.

또한, 유달산 노적봉은 이순신 장군이 바위를 짚더미로 위장해 군량미처럼 보이게 해 적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시는 이와 같은 충무공과의 인연을 유달산 봄축제와 연계하여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봄의 향기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축제의 핵심콘텐츠는 만호수군과 봄축제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유달산의 봄과 노적봉,

만호진이 가진 역사와 지형을 배경으로 목포가 가진 우수한 역사자원을 홍보한다.

주요프로그램은 봄꽃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와 만호수군 출정퍼레이드이다.

콘서트 첫째날은 가수 정미애, 신성, 최유나, 화연이 참여하고 둘째날은 가수 서도벤드가 함께한다.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만호수군퍼레이드는 목포의 수군 역사에 따라 웅장하게 연출된다. 조선 세종 때 설치된 목포진에는 만호(萬戶)가 배치되었다고해 만호진이라 부르기도 했다. 여기서 기원이 되어 현재 만호동이 되었다.

목포시는 만호의 정신을 이어받은 만호수군 퍼레이드로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역사적 자원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판옥선(차량) 퍼레이드와 두 방향에서 출발하는 연출방식으로 볼거리를 더한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뀐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